

“ 나는 무익한 종어로소이다 ”

■ 이종윤 원로목사

종에게 무슨 명제가 있습니까.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부리기 위해서 바위라든가 곰쇠늬같은 별명이 있을 뿐 이름이 없으니 명함이 있을 리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면 은혜요 알아주지 않아도 고마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게 내 것이 없으니 스스로 이룬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주의 소유물인데 내게 무슨 소유권이 있으며 등기부에 올릴 이름 석 자가 없는 주께에 내 소유 내가 한 일이란 가당치 않은 말입니다. 시간도 심지어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종에게 고난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을 가지려고 할 때 옵니다. 앉지 않아야 할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옵니다.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손발이 절단되고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 종입니다. 종에게 무슨 권력이 있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겠습니까. 천부당만부당한 말입니다.

종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주인에게 따지거나 제 의견을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발갈고 양을 치고 돌아와서는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시중 들어야 합니다. 일하려면 하는 것이고 밤을 새우려면 새우는 것뿐이지 거기에 거절이나 불평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둘로스)이라고 불렸습니다. 헬라어로 둘로스는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을 기쁘게 할 뿐입니다. 겨자씨만한 순수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은 이같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게는 지혜도 능력도 없습니다. 주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무익한 종에게 보상도 없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켰다 해도 모두 주님께서 하신 것뿐입니다. 나는 그 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감지하지 할 뿐입니다. 보상이 없다면 알아라도 주셔야 할 터인데 종에게 그런 보상심리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종은 무엇을 소유해서도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뿐입니다.

종에게 상대적 감사나 순종이 아니라 절대 감사, 절대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원망은 없습니다. 받았으니 감사가 아니라 없어도 빼앗기고도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뜻대로 일이 안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히 생각하고 뒤로 물러서는 이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안 되고 남의 인정 없어도 주님 명령에 순종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지칠 만큼 수고를 하고도 한 것이 없다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 사고를 하는 서양인들에겐 이해가 어려운 표현입니다. 어찌보면 정직하지 못한 지나친 겸양이라 할지 모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이에겐 어떤 일이 닥쳐와도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부족하고 주기도 부족하고 오히려 죄송해 하는 마음 그것이 무익한 종의 자세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이는 남을 실족케 안할 것이며 다른 형제의 과실을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될 것입니다.

-한국장로신문 [제 1339호] 2012년 10월 13일 발매-

| | |
|---------------------------------------|---|
| English Worship Service | |
| [Room 802, 11:20 am] | [Preacher : Pastor Joshua Khurram] |
| |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 * Call to Worship | John 4:24 Presider |
|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 * Doxology | 1 Congregation |
| Congregational Prayer | Deacon Kichan Yoo |
| Hymn | 2 Congregation |
| Scripture Reading | 2 Kings 4:1-7 Presider |
|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
| Offering | Congregation |
| * Offering Hymn | 50 Congregation |
| * Offering Prayer | Presider |
| Anthem | Congregation |
| Sermon | “God’s Supernatural Supply” ... Pastor Joshua Khurram |
| * Hymn | 210 Congregation |
| * Benediction | Preacher |
| * Lord's Prayer Song | 635 Congregation |
|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 |

| | | |
|------------------------|---|--|
|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 서울교회 QR코드  |
|------------------------|---|--|

| | |
|---|--|
| 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교사 강아급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훈(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경,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찬(홍성임(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경(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케냐), 김종일(백승미(타기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씩, 이경엽, 알로르,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란존(방글라데시), 박영성,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

| | | |
|--|---|---|
|  | 천국시민 양성 · 만민에게 전도 · 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  |
| |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

“ 믿으면 알게 되는 경지 ”

■ 요 9:1-12
 예수님 공생애 시대에도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본문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불안하고, 아무런 보장이 없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장애를 입고 고통 당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믿음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극대화 하고, 그 고통에 집착하므로 정신적 폐해로 인해 무너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 이유를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기쁨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2.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라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일에 의미가 있고, 사람들 눈에는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가 있고,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선전적으로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륜을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두 눈과 두 다리가 멀쩡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쓸모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부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탄한 신화와 변론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륜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 치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십니다. 상처 입은 자의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을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보여 주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은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약의 세력 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은 기회입니다. 위기는 창조의 기회이고, 실패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입니다.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특별한 기회가 온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에 정복 되지 않고 그 병과 상처를 정복하시고 나으신 분이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것을 주신다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순간 구원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은 '믿음 = 순종'이라는 등식을 우리 앞에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는 낱득하기 어려운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실로암 못은 예수님과 맹인이 서있는 곳에서 매우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한 마디 불명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즉시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이같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을 하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함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방이 내려졌을 때 선택은 오로지 맹인의 몫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은 열렸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맺는 말
 성도는 한 번 겹은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믿음과 주님의 믿음이 결합될 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맹인은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즉시 실로암 못으로 달려갑니다.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져도, 정해진 목적지를 향하여 운명처럼 직진하여 목적지에 도달하여 일른 연못의 물로 씻어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교회는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보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실 자체가 주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심에 순종하는 자, 실천하는 자만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경지, 이 믿음의 신비한 비밀의 구원의 역사는 믿는 자만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믿으면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총과 믿음의 경지에 우리 모두가 이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전례홍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 Sunday Worship Service | | |
|------------------------|----------|--------|
| 시 간 | 인 도 | 기 도 |
| Time | Presider | Prayer |
| I 오전 9시 | 서명철 목사 | 조정식 장로 |
| II 오전 11시 20분 | 장석남 목사 | 임상현 장로 |
| III 오후 2시 | 조원영 목사 | 인 도 자 |

임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8:25-26...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8(사순절 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54(13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마 15:21-2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네 믿음이 크도다”... 김의창 목사
 * 찬 송 Hymn425(21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37:3-4 인 도 자
 찬 송 20(41) 다 함 께
 기 도 유기찬 집사
 성 경 약 3:1-12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 설 교 자
 * 찬 송 149(147)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유묘중 권사
 성 경 삼상 31:1-13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앉되라" ... 설 교 자
 * 찬 송 Hymn425(217)...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해란 김양안 박수강 김복희2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서명철 목사

|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 | | | | | | |
|--|------|-----|--------|-------|-------|--|-----|-------|
| 찬 양 대 | | | | | 헌 금 송 | | | |
| 예 배 | 찬양대 | 지휘자 | 오르가니스트 | 피아니스트 | 팀파니스트 | 찬양대 | 지휘자 | 피아니스트 |
| I부 | 가브리엘 | 백경화 | 박준호 | 박승기 | 윤주일 | 가브리엘 | | |
| II부 | 할렐루야 | 류충기 | 차주연 | 김양언 | 윤주일 | 그레이스핸드벨 | 송재월 | |
| III부 | 임마누엘 | 유태왕 | 김윤지 | 이주희 | 윤주일 | 아멘관현악단 | 임범창 | |
| 찬양예배 | 베들레헴 | 임범창 | 안효주 | 박수강 | 윤주일 |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 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요 9:11) | | |
| 영어예배 | 예루살렘 | | | | 지난주 | | | |
| 수요 I부 | | | | | 성구 | | | |
| 수요 II부 | 시 온 | 최유현 | 김예지 | 조현정 | | | |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 구 분 | 시 간 | 장 소 |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본당 |
| | II 부 예 배 | 오전 11시 20분 |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 English Worship | 오전11시20분 | 8층(802호) |
| 수 요 예 배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웨스트민스터 홀 |
| 새 벽 기 도 회 | | 오전 5시 30분(월 - 토) | 본당 |

교회소식

◆ 모임

- 교구위원회(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모임) / 7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 정기당회 / 10일(수) 수요예배 후 가이오실
- 에스더 야외 예배 / 11일(목) 오전 10시 종곡동 어린이 대공원 정문
- 4교구 연합모임 / 12일(금) 오전 9시30분 교회 출발(별도공지)
- 임마누엘 절기 찬양 연습 / 13일(토) 오후 5시 101호

◆ 알 램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금일 세례식 문답 실시 / 금년도 두번째 4월 세례식이 4월 14일(주) 저녁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로서 문답청원서를 작성 제출하신 분은 세례를 위한 문답을 위해 4월 7일(주) 오후 1시20분까지 105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후1시30분부터 문답 총정리가 있으며 오후 2시부터 바로 문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례교육부 010-7743-3223으로 문의바람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
| <p>앞면에서 계속</p> <p>13.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p> <p>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결 혼</p> <p>1. 김현승 군(3교구 김형배 집사, 고정숙 권사의 장남)과 김서은 양(김명종 성도, 이수민 성도의 장녀) / 4월13일(토) 오후 3시 테라빌(구 웨딩의전당) 1층 그랜드볼룸홀(541-8000) / 9호선 봉은사역 1번 출구</p> |
|---|

지난주 출석현황

| 주일1,2,3부 | 찬양예배 | 교회학교 | 주일예배 합계 | 수요예배 |
|----------|------|------|---------|------|
| 848명 | 224명 | 195명 | 1,267명 | 129명 |

수입, 지출 내역보고(3/31)

(단위 : ₩)

| 월 일 | 적 요 | 수 입 | 지 출 |
|--------|-------|------------|------------|
| 3월 31일 | 헌 금 | 46,562,170 | |
| | 찬양운영비 | | 10,890,000 |
| | 출 판 비 | | 250,000 |
| | 복리후생비 | | 81,000 |
| | 통 신 비 | | 45,460 |
| | 수도광열비 | | 189,000 |
| | 차량유지비 | | 179,360 |
| | 소모품비 | | 233,640 |
| | 환경유지비 | | 141,600 |
| | 수선유지비 | | 1,350,000 |
| | 잡 비 | | 70,000 |
| | 식당운영비 | | 1,116,610 |
| | 합 계 | 46,562,170 | 14,546,670 |